



아이디어

ART

아이디어

Colours  
in  
You

Sometimes he  
always love

NEVER  
QUITE THE  
S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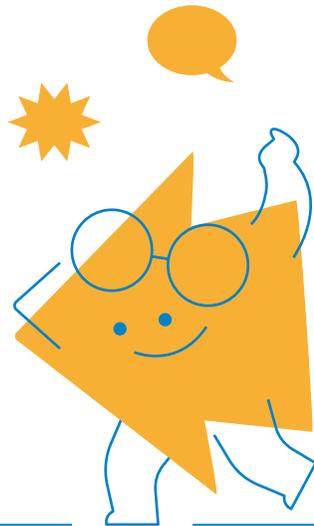
따뜻한 복지 행복한 예술인,  
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시작됩니다.



이 책은 부산 예술인들이 한눈에 예술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만든  
예술생활 안내서입니다.

# 알 Art! 부산한 예술생활

# 편집진 ← 화살표 입니다



“  
예술인을 위해서,  
응원의 마음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기나긴 팬데믹 시대를 지나 그동안 위축되었던 몸과 마음을 펴고 새롭고 다채로운 예술 활동을 위한 준비에 한창 몰두하고 있을 예술인을 위해서, 응원의 마음을 차곡차곡 담아 이번에 <알! 부산한 예술생활>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부산 예술인들이 한눈에 손쉽게 예술생활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안내서입니다. 여기서 '알!'은 새로운 발견을 접한 기쁨, 놀라움과 아트(Art)의 한글 발음을 한 글자로 축약해서 만든 조어(造語)입니다. 또한 '부산한 예술생활'의 '부산한'은 지역 '부산(釜山)'과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뜻의 '부산하다'를 중의적으로 담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안내서는 부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응원하는 모두의 마음과 같습니다.

<알! 부산한 예술생활>의 창간호에는 예술인의 직업적 위치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창작 활동을 증진하는 정책인 '복지'에 관련된 알찬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부산 예술인들의 생활이나 창작 활동에 있어 어렵게만 느껴지는 여러 복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 지역 모든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데 지침서가 되길 희망합니다.

안내서를 만든 편집진의 명칭인 '화살표'는 유익한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는 이정표에서 착안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예술인 박민경(공예), 심종후(미술), 엄효빈(공연), 유혜린(문학)으로 구성된 우리 화살표들을 따라 어렵고 복잡하게만 보이는 예술인 복지, 생활, 창작, 일자리, 기타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의 세계에서 쉽고 간편한 길을 찾아 보람찬 예술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진을 대표하여 박민경

04 여는 글

08 오프닝

예술인에겐 복지가 어렵다?

10 예술복지 첫걸음

예술복지, '예술활동증명'으로 출발하기

14 이럴 땐 이런 복지

- 1 예술인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지나요?
- 2 예술프로젝트에 참여하자고 연락받았는데, 바로 참여하면 될까요?
- 3 예술인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4 예술활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의료비가 부족한데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5 다른 공연이나 전시를 보며 영감을 얻고 싶어요.
- 6 예술인은 소득이 불규칙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워요.
- 7 예술 활동을 하면서 고민이 계속 생기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 8 기타 다른 복지사업 모음.zip

33 복지 더하기

-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만들기
- 2 공인회계사가 알려주는 세금 정산 TIP
- 3 애도 다음으로 해야 할 일
- 4 복지단어 해설집

46 꿀팁과 꼼수 사이

- 1 챗지피티로 지원서 작성하기
- 2 예술인이 즐겨찾기 해두면 좋은 사이트
- 3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행복플랫폼으로

51 독자참여 이벤트

52 닫는 글

예술은 개인의 복지와 정신적인 안녕을 증진합니다. 또한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도모하기도 하고 마음의 치유와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처럼 예술의 역할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조그마한 위로와 휴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만들어 내고 다듬어 내는 예술인에게 있어서 복지란 무엇일까요? '화살표'들이 예술인과 복지에 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 예술인에게겐 복지가 어렵다?

## 엄효빈 공연

저는 복지가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라고 느끼진 않는 거 같아요. 그보다는 약간 믿는 구석 같달까. 그간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성인으로 대우받는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도 못 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가족에게 손을 빌려야 하는 식이었거든요. 청소년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복지가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서, 복지가 성인으로 모양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 유혜린 문학

저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게임 용어를 사용하자면 버프(buff)를 주는 것 같아요. 복지를 받는다고 제가 굉장히 잘살게 되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유용하게 도움받을 일은 많아요. 그래서 게임 비유를 이어가자면, 치료도 해주고 마나(mana)도 주는 버프 같아요. 또 하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름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 활동은 개인의 활동이란 인식이 강한데요.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만 같죠. 하지만 예술인도 사회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아야 하는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구성원으로서 이름이 불러본 경험은 많지 않았어요. 복지 혜택을 위해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참 쉽지는 않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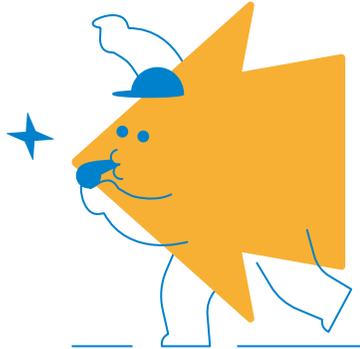
## 박민경 공예

예술인 복지가 실상 다른 일반인이 혜택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옵션과 같다고 봐요. 그런데 괜히 우리가 예술인이라서, 특권처럼 우리만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예술인을 복지에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쉽게 복지를 생각하면 좋을 거 같아요.

## 심종후 미술

복지를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술인으로 지내면서 복지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를 만큼 자연스러운 혜택도 있더라고요. 복지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여태 어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재단 측에서도 복지사업이 좀 더 자연스럽게 예술인 생활에 녹아들 방법을 고안해서, 저희 예술인들이 복지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에 제일 먼저 마쳐야 하는 기본 절차예요. 예술 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이나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고, 창작·실연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증명'을 '확인'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예술활동증명' 으로 출발하기

### 예술활동증명, 왜 해야 하나요?

**유혜린 (문학)** 예술 활동을 할 때, 예술활동증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에 차이가 생겨요. 많은 복지사업이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인의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거든요. 그렇기에 예술활동증명을 마치고 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 이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박민경 (공예)** 어떤 시스템이든 예술활동증명이 필요해요. 하나의 신분증 같은 역할이거든요. 예술활동을 마친 예술인들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의료비, 심리상담과 예술인들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죠.

**심중후 (미술)** 이처럼 예술활동증명은 관에서 정해주는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같아요. 우리가 앞서 복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던 기준에 대한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여요.

**엄효빈 (공연)** 사실 '증명'과 같은 단어는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내 예술활동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확인'으로 바뀐다는 점이, 예술인들이 증명을 불편해했던 걸 알고 보완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 \* 예술활동증명,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3년 6월 30일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개선됐어요

- ①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코로나19 재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됐어요.
- ②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됐어요.
- ③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누적 20년 이상이면, 이후 평생 재신청이 면제돼요.

## 예술활동증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http://www.kawfartist.kr) 에서 회원가입 후 기본 정보 입력 및 자신이 선택한 예술활동증명 종류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행정심의회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보통 3~4개월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메일로 '완료' 혹은 '미완료'로 결과 공지되며, 미완료 시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어요.

예술활동증명의 종류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업', '기준 외 활동',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나뉘어요. 많은 분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하실 텐데요. 이때 장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요. 종류별, 장르별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신청가이드, 예시까지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참고로 신진 예술인의 경우에는 어떤 분야든 최근 2년 동안의 예술 활동을 올리면 된답니다.

##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공연예술 장르 예술인의 경우 작품 도록, 발간 책 등이 남지 않으니,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이때 자료로 날인이 찍혀 있는 본인 계약 단체 확인 서식, 급여명세서를 준비해놓으면 좋아요. 참고로 모든 장르에 대해 경연대회, 공모전, 공모전, 축제, 행사의 출연이나 기획 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 활동에 포함되지 않아요. 학교나 사설 교육기관 내 예술 활동이나 학생이 대상인 예술 활동도 직업 예술 활동에 포함되지 않아요. 졸업전시회나 정기공연 같은 거예요. 출판 분야, 강의 교육 활동도 예술인 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자료를 사용하면 미완료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숙지하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 또한 갱신일이 설정되면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이것만 잘 숙지한다면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손쉽게 할 수 있어요.

32P  
QR코드

1

## 예술활동증명 절차 및 종류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팀  
02-3668-0200

### \* 예술활동증명 절차

예술인

① 예술활동증명 방법확인 → ② 자료준비 → ③ 신청(온라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⑥ 결과확인 ← ⑤ 심의위원회 심의 ← ④ 행정심의회

### \*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택1)

① 예술활동증명 (일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예술활동 수업 : 기준 외 활동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②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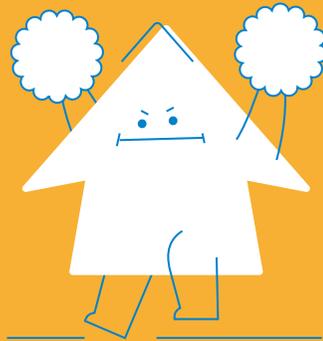
③ 예술활동증명 특례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 TIP 예술활동증명,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①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시, 재직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어요.

② 행복주택 신청자격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정부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포함돼있어요.



# 이럴 땐 이런 복지

1. 예술인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지나요?
2. 예술프로젝트에 참여하자고 연락받았는데, 바로 참여하면 될까요?
3. 예술인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예술활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의료비가 부족한데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5. 다른 공연이나 전시를 보며 영감을 얻고 싶어요.
6. 예술인은 소득이 불규칙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워요.
7. 예술 활동을 하면서 고민이 계속 생기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8. 기타 다른 복지사업 모음.zip

예술인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지나요?

Q

예술인의 권리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A

###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대한 법안이에요. 예술인의 지위와 역할,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등의 내용을 담아, 2022년 9월 25일 시행됐어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라는 헌법 규정(제22조 제2항)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데요. 이 법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지위가 보장되고,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기존법률에 보호받지 못했던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어요. 또한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아울러 예술인의 범위를 직업 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예술대학, 예술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자로부터 훈련을 받는 연습생 등)도 포함됐단 점도 큰 특징 중 하나예요.

32P  
QR코드

2

###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출발점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란 국가가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인에게 법·제도·행정 등의 공적 수단을 동원하여 검열·사찰·배제·차별하는 등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 범죄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라는 이슈가 대두됐고,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법 제도가 부족했다는 현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안됐어요. 또한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또한 요구됐어요. 예술인의 권리보장이란 큰 틀 속에서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자는 과제도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했죠. 큰 두 사건을 통해 문화예술계가 지나온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향상하겠다는 다짐 속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자고 연락 받았는데, 바로 참여하면 될까요?

Q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A

### 표준계약서란?

공정한 계약의 기준이 되는 표준 양식의 계약서입니다.

### 표준계약서를 왜 써야 하나요?

그림책 『구름빵』을 쓰신 백희나 작가님은 신인 시절에 저작권을 출판사에 일괄 양도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는 '매절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구름빵'이 유명해졌는데도 아주 적은 수익만 가져가셨다고 해요. 이후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하셨지만, 결국 패소하신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이처럼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두 계약이 아닌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정한 계약을 해야만 예술인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어요.

32P  
QR코드

3

### \* 표준 계약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계약서 검토가 어렵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가이드북을 참고해 보세요.

32P  
QR코드

4

### \* 표준 계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술인 권리 보호 교육' 코너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각 예술 분야에 맞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 예술 계약, 권리 보호 등 계약서 작성 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무료로 가르쳐 주세요. 강의 중 강사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간단히 답변해 주셔서 좋아요.

32P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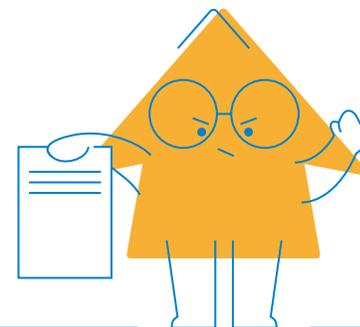
5

6

7

### \* 불공정한 계약서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부산문화재단 등 예술인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는 곳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법적 분쟁이 있거나,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용 가능해요. 더불어 서면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 예술인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A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예술 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이에요. 예술활동증명과는 관련 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가입 대상이 된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예술인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를 통해 예술인도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 이직이 아니면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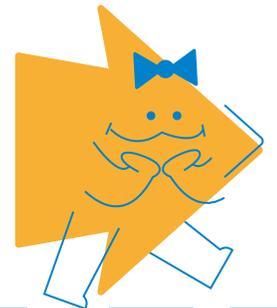
또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출산한 여성이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출산전후급여는, 수급요건으로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가입이 필요해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수준을 지급하고(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기준보수의 60%)),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32P  
QR코드

8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노무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안내 창구(T.02-3668-0200)**도 운영 중이니,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상담받아 보세요.



예술활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의료비가 부족한데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Q

A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또는 의료비 지원을 받아 보세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직업 예술 활동 시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납부보험료의 50~90%를 지원하여 예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연중 상시로 '예술인 산재보험(wci.kawf.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예술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 판정을 받게 되면,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치료비), 장애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지급돼요.

산재가 아니더라도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최대 300만 원, 일반질환 100만 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원 소득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 사업 담당자 앞으로 우편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medic@kawf.kr)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소 많아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보험가입조회서, 보험정관 또는 약관,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가 필요해요.

32P  
QR코드

9

32P  
QR코드

10

다른 예술인의 공연 또는 전시를 보며 영감을 얻고 싶어요.

Q

A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아 보세요.

'예술인패스'란 예술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여러 문화공간의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사람 외에도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에게도 지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전에는 '예술인패스'가 실물 카드로 발송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예술인패스 사이트(artpass.kwaf.kr)에 접속하여 모바일 카드 화면을 캡처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술인패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발급받은 예술인패스를 현장(전시, 공연기관)에 함께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전시 또한 누리집에 상시로 업데이트되니, 잘 챙겨서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 공간이나 생활공간의 혜택을 받아보아요.

예술인패스 시안



예술인은 소득이 불규칙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워요.

Q

A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어요.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제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시행하고 있어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 ① 생활안정자금대출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 될 수 있는 대출 상품

대출용도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대출한도	최고 700만 원 이내
신청기간	매월 1~10일 신청·접수
이율	2.5%(연체이율 5.5%)
상환방법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2P  
QR코드

12

### 대출절차

#### ① 사전준비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www.kawfartist.kr

대출 서류 준비  
상품별 준비서류 안내 '아트론 홈페이지' 하나은행 계좌 개설

www.artloan.kr  
아트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

#### ② 대출신청

온라인 접수  
아트론 홈페이지

상담·접수  
하나은행 \*부산지역 전 영업점

#### ③ 심사

기본 서류 확인 ▶ 조건 확인 ▶ 우선 순위 확인 등 ▶ 한도 설정

#### ④ 금융교육(온라인필수)

아트론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 ⑤ 약정서 체결

하나은행 해화동 지점 및 전국 하나은행 지점

#### ⑥ 자동 이체 신청

하나은행 해화동 지점 및 전국 하나은행 지점

#### ⑦ 대출금 지급

신청계좌 (하나은행)

## ② 전세자금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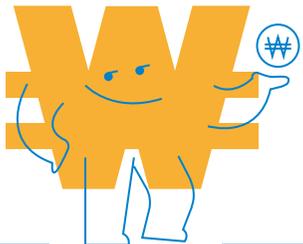
예술인의 주거 안정과 창작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대출한도	최고 1억 원 이내(보증금의 80%이내)
신청기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홈페이지 공고 확인
이율	1.95%(연체이율 4.95%)
상환방법	2년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대출절차	



### 후기. 실제로 받아봤어요

**엄효빈(공연)** 예전에 생활비 부족으로 주거레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불규칙한 소득으로 대출 실행이 안된다는 이야기에, 예술인이라 대출 받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예술활동증명 준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술인생활안정금' 사업을 알게 됐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500만 원을 대출받아, 결혼자금으로 사용했었네요. 사이트 신청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원본 등을 준비하니, 큰 어려움 없이 대출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다음에 이사갈 때 '전세자금대출'에도 도전해보려고 해요.



## 하나은행 담당자가 말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Q** 담당하신 업무 관련하여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하나은행 기관사업그룹 및 영남영업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정진호 부장입니다.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 공공기관들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현재 부산 예술인은 용자사업을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A** 2022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취급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건수는 68건으로 전체 건수의 4.02% 수준이며, 전세자금대출은 9건으로 전체 건수의 6.29% 수준으로 높은 이용률은 아닙니다. 동 정책의 취급 주체인 공공기관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 정보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지역보다 이용률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은행은 정부의 금융지원사업의 주관 공공기관의 주거레 은행으로 부산 예술인들이 다양한 복지제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담당자로서 이 사업에 참여할 때 팁이 있을까요?

**A**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월 1회 월초에 신청/서류 접수 후 월중에 심사하여 대출승인 및 월말에 대출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예상되면, 대출신청 가능한 일자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본인이 신청할 대출종류(의료비, 생활안정, 결혼자금 등)를 정하셔서 사전에 기본서류 3종류와 용도별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 당일 일찍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 대출은 저금리 상품이라 오랜 기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년 만기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만기시상환자금이 부담된다면, 각 금융기관의 고금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셔서 대출 만기일과 적금 만기일을 일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금의 경우 납부일에 납부가 지연될 경우 예금 만기가 지연됨으로 대출을 상환 못할 수도 있는바, 적금 납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은행직원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후 준비하신 서류를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술 활동을 하면서 고민이 계속 생기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Q

예술인 컨설팅을 받아 보세요.

A

### 예술인에게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컨설팅은 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말해요. 예술 활동 중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컨설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컨설팅

#### ① 법률 컨설팅

지원 대상	예술 활동 중 생긴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
지원 내용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계약서 조항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
신청 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법률상담 게시판, 아이컨택 사이트의 '법률' 컨설턴트 항목을 이용해 법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 ② 상담/지원 컨설팅

##### 심리 상담

지원 대상	상담을 통해 괴로움을 풀고 싶은 예술인
지원 내용	심리 검사, 개인 상담 또는 집단 상담. (신경정신과 약 처방 x)
신청 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부산문화재단 아이컨택'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성폭력 피해 지원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 내용	성폭력 피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
신청 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부산문화재단 아이컨택, (사)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051-558-8858)

32P  
QR코드

6  
14  
15

#### ③ 부산 예술인들을 위한 컨설팅

부산에 살면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이라면, 예술활동증명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매칭 서비스 '부산문화재단 아이컨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예술인 지원(창작, 예술 기획), 창작물 제작 지원(창작 기술, 예술 창업, 홍보 및 마케팅) 예술계 공정 환경 조성(저작권, 법률, 회계, 노무), 심리 상담과 성폭력 피해 지원 등 '부산문화재단 아이컨택' 사이트에서 연 2회,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예술인에게 힘이되는 기타 복지사업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인과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1~3월에 공고 및 모집이 이뤄지고, 4월에 참여 팀, 예술인이 선정됩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협업도 진행하고 활동비도 챙겨보세요.

#예술활동협업 #직업역량강화 #안정된 예술창작 환경

### 창작준비금

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2년마다 1번씩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돼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상반기·하반기 2번 접수하고,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는 하반기 1번 신청받고 있어요.

#신진예술인 신청 가능 #300만원 지원금 #지속적 예술활동 지원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프리랜서, 근로자인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 또는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하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 편입 #국민연금 50%지원 #프리랜서도 가능

### 예술인신문고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신고접수, 조사를 의뢰하면 사실조사 및 피해구제 등의 지원절차를 마련했어요. 사후조치 또한 절차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후의 심리상담, 의료, 소송 등의 피해자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요. 망설이지 말고 한국예술인복지지원센터 권리보장팀에 문의하세요. T.02-3668-0200

#권리보호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 #피해자 지원까지

### 예술인권리보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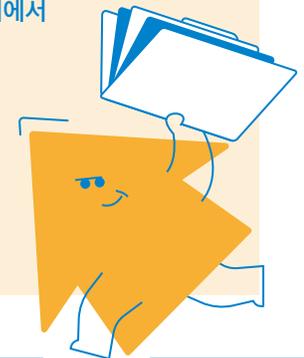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요. 계약, 저작권 등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어요. 한국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도 계약의 이해, 권리보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일정은 각 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하고 있어요.

#내 권리 내가 스스로 지키는 법 #교육받고 권리UP

### 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빈집을 예술인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있어요. 최대 3년간 입주가 가능하며, 부산문화재단(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가 올라오면 입주 신청을 받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T.051-745-7236

#입주예술가 #빈집을 예술공간으로 #지역민과 함께



##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 예술인 권리보장법 법령 정보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준계약서 보급 다운로드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호교육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컨설팅



6 부산문화재단 예술인 컨설팅 매칭사업 아이콘택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신고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용보험 안내



9 예술인 산재보험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의료비 지원



11 예술인패스 홈페이지



12 예술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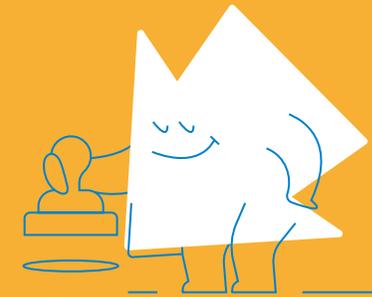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컨설팅



15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성폭력 피해 상담신청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만들기
2. 공인회계사가 알려주는 세금 정산 TIP
3. 애도 다음으로 해야 할 일
4. 복지단어 해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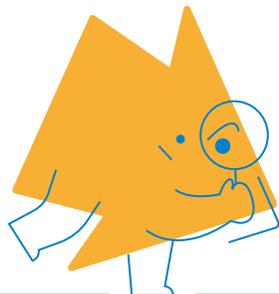
# 복지더하기

## 고유번호증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

## 사업자등록증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한 후 받는 증표



Q1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자신 또는 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증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술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거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실제로 거래 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공제 등 각종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정부의 지원 정책과 혜택,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영리사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돼요.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신고, 납부에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Q2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

A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영리사업, 비영리사업 모두 영위할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만 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 모두 발행할 수 없어요. 수익사업이나 기부금영수증 발행 또한 안 돼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법인 또는 단체는 급여 등 관련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매입세금계산서(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만 하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세금납부 의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신고 모두 해당 될 수 있어요.

Q3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A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은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역(사업장 소재지 기준)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로그인(개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상단메뉴 중 개인 클릭 → 세무서류신고신청 클릭 → 사업자등록증 신청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중 선택'해서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상호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국세 정보 문자수신(동의), 기본주소(사업장주소), 이메일, 업종과 업태를 검색하여 기재하시고, 개업 일자는 신청일 당일이나 20일 이내로 날짜를 정하면 돼요. 사업자유형은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 '간이'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까지는 관할 세무서에 따라 1~3일정도 소요되니 그 이후 다시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세무서에 원본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Q4

고유번호증 발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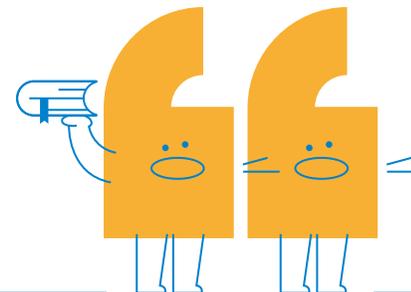
A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신청은 세무서에 비치되어있는 고유번호 신청서와 대표자 선임 신고서를 받아서 기입하세요. 정관 사항과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필요합니다. 정관 사항은 회칙이므로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세무서에 같이 제출하셔야 해요.

Q5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절차

A



Q1

**사업자등록증 발급에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예술인들에게 유리할까요?**

A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부가가치세에서 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0%~4% 정도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요건은 연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이며, 1년에 한번(1월 25일)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만 있으며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만 면제되고 소득세, 원천세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 중 연매출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다만, 창업시점에서 면세사업자를 낼 수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면세사업자가 유리하나, 면세사업자를 낼 수 없는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 보다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Q2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프리랜서가 많은 예술인들의 세금신고와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A

사업자는 매월 원천징수 신고,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다양한 지급명세서 신고, 그리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많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처리하면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보수를 지급받을 때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세금을 정산 해야하나,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간편장부로 진행하는 경우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하고,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시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복식장부보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지출(비용)이 많은 편이라면 복식장부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나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아 비교적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상기와 같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결과의 종합소득세 금액이 원천징수(3.3%)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Q3

**강연료나 예술가들에게 일시적, 우발적인 수입인 경우  
기타소득은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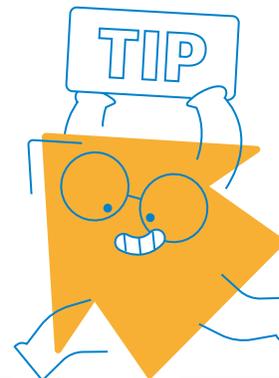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으로는 상금, 복권당첨금, 보상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 소득, 강의료, 원고료, 사례금 등이 있습니다.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8.8%입니다. 8.8%가 산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60%이므로, 총 수입금액의 40%에 기타소득세율 20%를 곱하면 총 수입금액의 8%가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10%인 0.8%가 지방소득세로 산출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계가 총 수입금액의 8.8%가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리과세는 20%가 징수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기타소득을 포함한 총 금액이 4,6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15%로 기타소득세율 20%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필요경비가 60%이므로 총 수입금액이 750만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3. 복지 이슈 에세이

올봄, '검정 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님이 돌아가셨다. 길 어지던 저작권 소송 중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다는 기사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검정 고무신처럼 유명한 작품의 원작자가 이런 일을 겪다니? 나는 검정 고무신처럼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의 원작자라면 걱정 없이 작품 활동을 하겠지 하며 막연히 부러워했던 것 같다. 그러나 출판사와의 저작권 소송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우영 작가님과 이우진 작가님 두 분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 에도 哀悼 다음으로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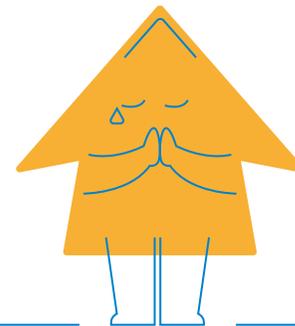
나는 이 일이 단지 개인에게 벌어진 불운한 사건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어느 예술인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최저시급도 안 주거나 열정페이밖에 주지 않으면 부당하다며 화내는 건 상식이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노동자의 범위 안에 예술인도 당연히 포함해서 생각해야 한다.

예술 작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목적이 감상이라면 주관적인 기준으로 작품의 가치 판단을 해도 좋다. 그러나 예술인들은 작품 활동으로 돈을 벌어 삶을 꾸려간다. 직장인이라면 적어도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술인도 마찬가지다. 작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불공정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지 않다. 부조리한 것을 지적하면 돈만 밝히면서 무슨 예술을 하냐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고통이 예술 작품에 깊이를 더해 준다는 말은 종종 함부로 쓰인다. 고통이 예술인의 시야를 넓혀 줄 수도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창작을 포기하고, 삶까지 포기하게 만들 때도 많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공하거나,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는 예술인도 있지만 그건 매우 드문 경우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술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밥을 굶으면 힘이 나지 않고, 불공정한 대접을 받으면 낙담한다.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극복한 예술인에 대한 찬사조차 보내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혼자 상황을 이겨 낸 예술인만을 보편적인 모범으로 삼으며 나머지 고통받는 예술인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은 2011년 최고은 감독님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나는 예술인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단순히 자극적인 사건으로만 소모되지 않기를 바란다. 비참함을 딛고 제대로 된 예술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생활고나 불공정 계약 등으로 좌절한 예술인들이 다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사회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좋은 작품은 작가에게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검정 고무신의 원작자들께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때까지, 검정 고무신을 추억하는 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이 이 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해린 작가



#### 4. 복지 단어 해설집

사업을 신청할 때 종종 '느낌은 알겠는데 낯설다' 싶은 단어가 있지 않으신가요?

긴가민가했던 단어들 함께 알아보아요

##### 신진 예술인&원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나 창작준비금을 준비하게 되면 '신진', '원로' 예술인이란 단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먼저 신진이란 어떤 사회나 분야에 새로 나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고 '예술활동증명'에서 사용하는 신진예술인이란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을 말해요.

다음으로 원로란 '한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을 뜻하고 '창작준비지원금'에서의 원로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유효기간 3개월 이상)된 만 70세 이상(2023년 기준 1953년 이전 출생)으로 20년 이상의 예술 경력을 보유하신 예술인을 말해요.

##### 구두계약, 독소조항

표준계약서를 작성과 관련하여 '구두계약', '독소조항' 두 단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구두계약이란 '증서 따위를 만들지 아니하고 말로만 맺는 계약'을 뜻합니다.

독소조항은 '법률적이거나 공식적인 문서 등에서 본래의 의도를 교묘하게 막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구두계약이 아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독소조항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 문화예술용역

예술인고용보험에서 만나는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해요.

##### 퍼실리테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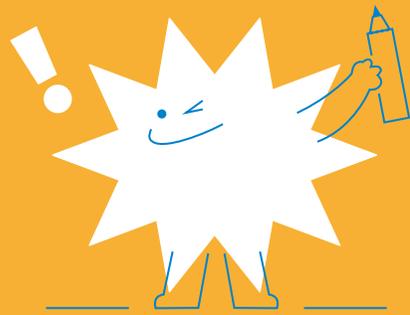
퍼실리테이터란 '예술협업 프로젝트를 기획/운영, 성과관리 등을 진행하는 예술인'을 뜻해요. 행복플랫폼의 경우에는 예술인으로서 동료 예술인을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 복지사업 신청에 도움을 주는 행복플랫폼 퍼실리테이터! 부산문화재단에서도 '행복플랫폼 퍼실리테이터'에게 도움받아 보세요'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도큐멘테이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서 활동 내용을 기록하라는 항목에서 '도큐멘테이션'이라는 낯선 단어를 발견! 도큐멘테이션은 '연구에 필요한 문서, 증거 서류, 자료, 문헌 따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활동한 내용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의 포트폴리오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달라는 의미로 '도큐멘테이션'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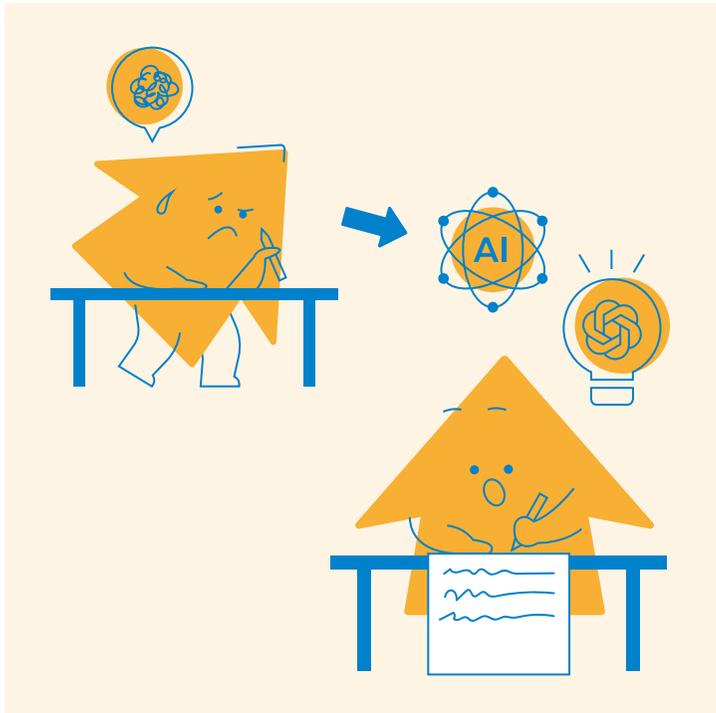
사업을 신청할 때 종종 만나게 되는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 수준으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100가구이고 각 가구의 소득이 1만원부터 100만원 까지라면 중위소득은 정 가운데 값인 50만 원이 됩니다. 창작준비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선 예시에 따르면 50만원의 1.2배인 60만원까지의 가구소득수준을 지닌 예술인에게 지원된다는 이야기랍니다.



# 꿀팁과 꼼수 사이

1. 챗지피티로 지원서 작성하기
2. 예술인이 즐겨찾기 해두면 좋은 사이트
3.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행복플랫폼으로

요즘 화제인 챗-지피티(ChatGPT)란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글 쓰는 인공지능(AI)'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얼마나 잘 쓰기에 이렇게 난리일까?'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검색해보았다. 웬걸, 꽤 괜찮다. 하지만 챗지피티에 대한 신뢰는 금물! 흔히 사용하는 챗지피티의 무료 버전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가 요긴하게 챗지피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요약'이다.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목표를 적어야 하는 일이 다분한데, 이럴 때 챗지피티의 요약 능력을 추천하고 싶다.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글 쓰기에 대한 고민은 깊어져만 간다. 이럴 때 내 생각이나 의견을 쪽 나열한 후 챗지피티에게 '100자 내로 요약해 줘'라고 입력해보자.



부산 예술인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 두면 기업과의 협업이 가능한 지원사업과 같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갱신을 해야 할 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kawfartist.kr](http://kawfartist.kr)

**\* 창작 지원, 복지 혜택이 필요할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kr](http://kawf.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or.kr](http://arko.or.kr)

부산문화재단 [bscf.or.kr](http://bscf.or.kr)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bawsc.bscf.or.kr](http://bawsc.bscf.or.kr)

**\* 컨설팅(법률 상담, 성폭력 피해 지원 등) 서비스가 필요할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kr](http://kawf.kr)

부산문화재단 아이컨택 [icontact.kr](http://icontact.kr)

**\* 예술인 일자리·지원 사업 소식을 알아볼 때**

(전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kr](http://kawf.kr)

아트누리(문화예술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 [artnuri.or.kr](http://artnuri.or.kr)

아트모아(예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artmore.kr](http://artmore.kr)

(부산) 부산문화재단 [bscf.or.kr](http://bscf.or.kr)

부산진문화재단 [bsjincf.or.kr](http://bsjincf.or.kr)

금정문화재단 [gjfac.org](http://gjfa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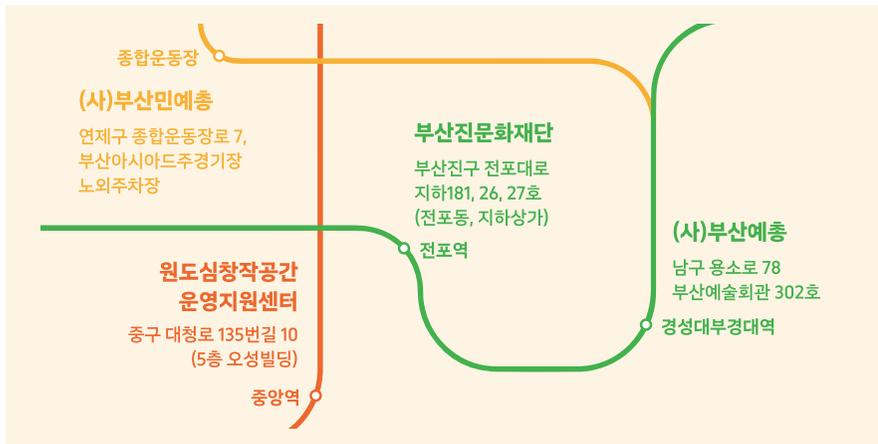
**\* 이외에도 유통지원, 교육 등의 혜택을 알아볼 때**

예술경영지원센터 [gokams.or.kr](http://gokams.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rte.or.kr](http://arte.or.kr)



예술활동증명, 창작준비금 등 복지사업에 참여하려는데, 신청 방법도 어렵고 인터넷 사용도 어렵다면? '행복플랫폼'을 찾아가자. 행(정)복(지) 플랫폼은 1:1 예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부산진구, 연제구, 중구, 남구에 위치한 권역별 플랫폼이 부산문화재단 사업 안내 및 홍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안내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자신의 거주지 가까이 있는 기관을 찾아가, 퍼실리테이터에게 예술인 복지 관련 상담을 받아보자.



\* 2023년 권역별 행복플랫폼 현황

권역	기관명	운영시간	번호
부산진구	부산진문화재단	월, 화 오전 9시~오후 2시	051-806-0016
남구	(사)부산예총	화, 수 오전 9시~오후 2시	070-7747-0401
연제구	(사)부산민예총	월, 화 오후 1시~오후 5시	051-503-0493
중구	원도심창작공간운영지원센터(또따또가)	월, 화 오후 2시~오후 6시	051-469-1978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침에 글을 쓰고, 오후에 운동을 하거나 재즈를 듣는 되풀이되는 하루를 통해 책을 집필한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정오 무렵에 일어나 저녁부터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늦은 밤 예술 열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각에 맞춘 일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예술인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에도 예술인 수만큼 다양각색의 하루가 매일매일 지나고 있을 테죠. 다른 예술인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루틴이 있는지 오는 11월 <알! 부산한 예술생활> 2호 '생활 편'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하루, 루틴을 소개하고 싶은 예술인은 독자 이벤트 참여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 ① 카카오톡 채널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친구추가
  - ② 채팅창 하단 '<알! 부산한 예술생활> 1호 이벤트 참여' 클릭
  - ③ 구글폼 양식에 따라 자신의 하루 일과표와 특이한 루틴을 소개해주세요.

\*이벤트 참여시 필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지 않으면 이벤트 응모에서 제외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첨자 확인과 추후 진행될 독자 좌담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활용 후 즉시 폐기됩니다.

참여기간 2023년 9월 8일 까지

발 표 일 2023년 9월 4일 월요일



“  
**즐거움과 행복한  
 예술생활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예술인 여러분.

긴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며 회복의 시간이 찾아올까 염려했던 날들을 지나 올 해는 다채로운 예술 활동을 더 많이 펼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단절된 세계를 다시 이어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시간”을 통해 부산의 문화예술 현장에 햇살과 바람,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알(Art)! 부산한 예술생활』 창간호 어떠셨나요? 부산 예술인들의 생활이나 창작 활동에 있어 어렵게만 느껴지는 여러 복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모든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데 지침서가 되길 희망한다는 박민경 화살표 편집위원의 말씀처럼 저도 읽어보니 다양한 정보가 예술인들의 시각에서 편하고 손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땀 한땀 지도를 만들고 큐알코드를 적절하게 넣어서 온-오프라인에서 정보가 연결되도록 구현한 즐거운 가이드북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2016년 3월)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지도 8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예

술인 복지 사업과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은 예술인과 기업이 협력,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도심의 빈집을 밝히는 <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더불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예술인들을 위한 알찬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일일이 홍보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 부산 예술인들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생활안내서로 『알(Art)! 부산한 예술생활』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예술인이 살기 좋은 부산, 예술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마음과 이야기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름을 지나 행복한 가을 맞이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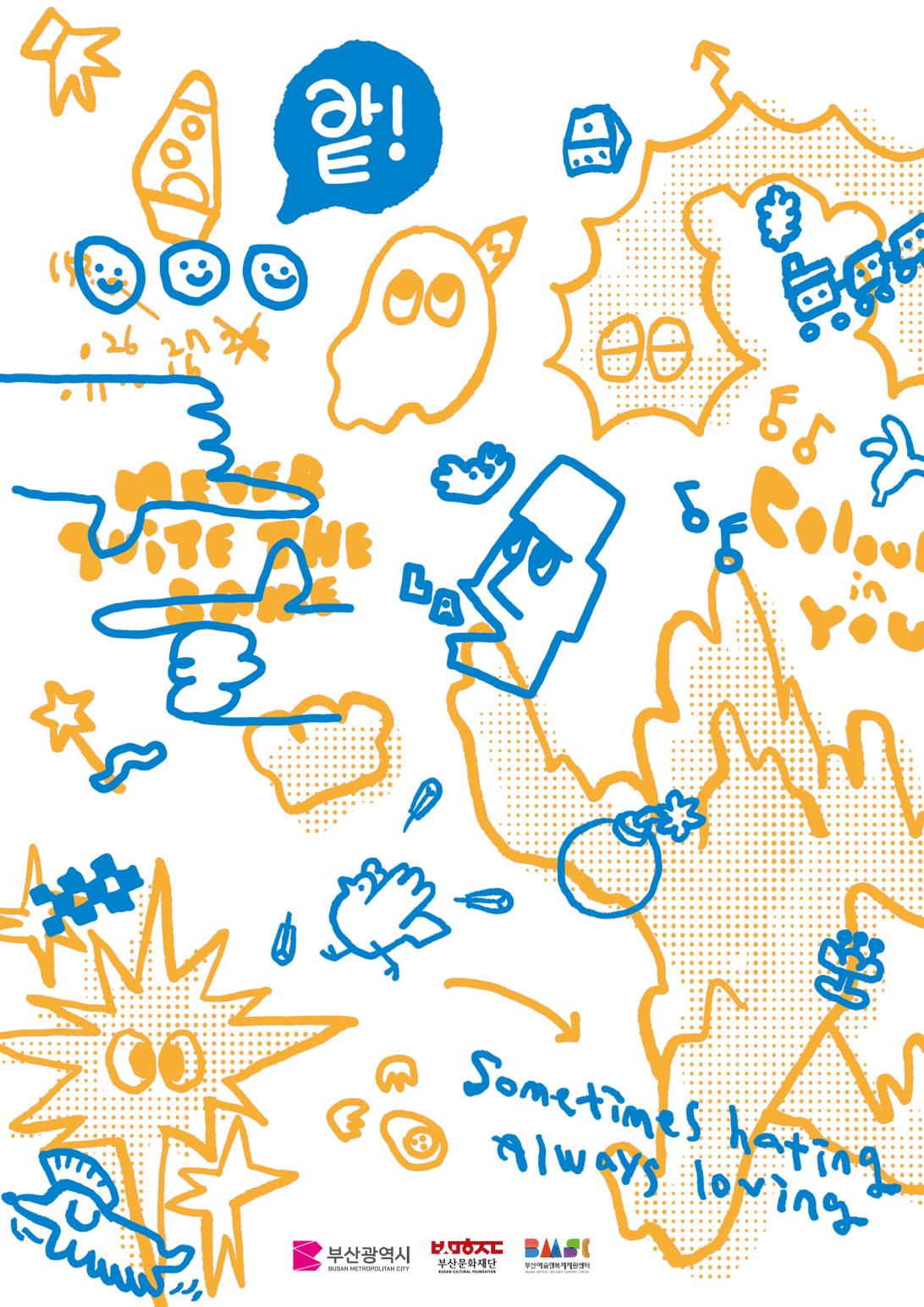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발간번호  
2023-009호

발행일 2023년 8월  
발행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bscfcenter@bscf.or.kr  
T.051-745-7216 F.051-744-7708  
기 획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및 편집  
편집진 박지영 박민경 심종후 엄효빈 유혜린  
디자인 박소정 최서운  
인 쇄 선은종합인쇄

<알! 부산한 예술생활> 2호는 '생활'을 주제로  
오는 11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행!

198  
26 25 24  
11

NEVER  
QUIT THE  
GAME

Sometimes hating  
Always loving